새물리 “창간사”를 읽고

DOI: 10.3938/PhiT.20.045

권 속 일

創刊辭

會長 權 寧 大

解放後 얼마안되어서부터 數物學으로 組織되어 活動을 開始한 以來 恒常 念頭에는 두었으리시도 會誌를 發刊程度에 이르지 못하다가 6·25 事變으로 自然解體되고 다시 서울大學校의 釜山避難校舍에서 韓國物理學會로서 出發을 하게된것이 1952年 12月 7日, 그間 10年이단 歲月이 흘렀지만 이렇다할 活動을 한일도 別한 없이 沈滯되어 오다가 丙午年 6月에야 이리저리만 總會를 열고 研究發刊會까지 가지게되어 비로소 會員들의 가슴속에 光明이 비치게되고 無言中에 決意를 새로히하게 되었다.

그러나 環境條件은 亦是 如意치 못하여 結局 4·19 革命以後 昨年 10月에 大幅의 人事改選과 아울러 새로운 世代의精神 밑에서 會誌發刊을 決議한바 있어 우리學會에도 革命精神이 깃들어서 豫定안대로 會誌를 創刊하고자 말겠다는 誓의이 이제 實現을 보게된 것은 매우 感激의이 기쁘기 極量이다.

始作이 쉬운 것일지도 같이 이제 宿願의 會誌를 刊行하게되었은즉 앞으로 반드시 이것이 續刊될것을 믿고나와 나아가서는 Journal의 刊行까지 實施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切切하다.

이 會誌는 性格上으로요야 會員相互間의 觀摩를 圖謀하는것을 目標로하는 機關誌인만큼 國內外의 學界의 動向을 紹介하고 會員各自의 消息을 交換할 뿐 아니라 學生會員 또는 同好人士들의 聲氣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科學水準에 一臂之役을 擔할수 있도록 하는 데 使命이 있다고 하겠다.

實은 이와 비슷한 性格을 띤 刊行物이 지금까지 몇몇 大學의 物理學研究室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重複되는 處이 없지않아 있기는하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한大學의 同窓會에 局限된 同好誌에 不遇한것이므로 全國의 物理學徒를 對象으로하는 本會誌와는 使命이 全然 다른만큼 何등의 矛盾도 重復도 없을것이며 또 大略의見地에서 볼때 그들은 本會誌로 吸收되는것이 우리나라의 經濟의興作에 맞는 方法일것 같다. 現在 外國에서도 論文의發表效果와 經濟的인 浪費를 생각하여 各大學別 또는 研究所別의 刊行物을 可及의 限止하고 全國의인 學會誌와 Journal에 集中시키는傾向이 顯著함을보아도 疑의의 首肯을 得한다.

우리 韓國物理學會가 應運하리던 會誌와 Journal의 內容이 充實해졌뿐 아니라 적어도 月刊으로 繼續할 程度의 論文이 豊富해지야 할것이며 그렇게치되면 刊行할것없이 會員各自 每年 數篇의 論文을 낼수있도록 研究에 沒頭하여야만 될수있는 것이다.

지난때부터 우리學會안에서도 몇가지 分野別 分科委員會의 構成이 要望되고 있음으로 가까운 將來에 그를 分科別 活動이 期待되는바이며 한편 亦是 우리들의 宿願이던 地方分會의 組織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그間 小型이나나 Cyclotron도 完成되었고 Cockcroft-Walton 裝置도 製作이긴하나 적어도 10 Mev 級의 加速裝置나마 가졌으면 低에너지域에서 興味를 가질수있는 研究도 해보겠으나 아직은 尙같은 이야기에 屬하며 研究費라고는 不足의 程度를 넘어서 殆無한 實情에 놓여있는 우리물리인들을 各研究機關에 있어서는 特殊研究用裝置를 마련할때 반드시 他機關과의 重複을 避하도록 하지않으면 아니될줄한다.

이리한 研究機關間的 連絡과 各會員間的 紐帶를 鞏固히함으로서 研究意欲을 북돋아주는것이 이會誌의所任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同時에 會員의 國內活動은 勿論이 아니라 國際會議 其他 外國學界의 參與等 모든 機會에 便宜를 提供할수있고 또 그것이 實效를 견줄수 있는 權威있는 學會가 되어지기를 期約하고싶다.

어느 會誌의 創刊號도 그렇듯이 우리會誌도 마음먹고 計劃되었던 몇분의 一도 실지 못하였으나 이는 會員들의 學究的熱誠如何에마라 곧 刊行할만한 內容을 가진것으로 發展할수 있을것이며 따라서 우리 物理學界는 代表하는 指針으로서 國內뿐 아니라 世界의 物理學界의 發展에 寄與할 날이 반드시 올것을 굳게 믿고 이創刊號를 會員諸位앞에 내놓는다.

우선 새물리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물리학회는 1952년 12월 7일 창립되었다. 6.25 전쟁으로 정부는 수도 서울을 부산으로 옮기고 많은 국민이 남쪽으로 피난하여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서울대학교

저자약력

권속일 교수는 미국 Utah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1965)한 후 Chicago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교수에 부임(1966)하였다. 그 후 한국물리학회 회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명지대 석좌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및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다. (sikwun@phy.snu.ac.kr)

부산 피난 교사에서 한국물리학회 창립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서울대 총장이신 물리학자 최규남 박사는 “앞으로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이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미국의 Wilson 전 대통령의 언급에 감화되어 당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립을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그리하여 최규남 박사 외 18명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학회 회칙과 회원 자격 등을 검토 심의하고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물리학회는 당시 국내 사회적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창립된 것이다.

그리고는 제2차 정기총회가 1953년 5월 30일에 부산 서울대 피난 교사에서 개최되었고 박철재 회원의 “고무의 결정화”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이 한국물리학회 학술 연구 논문 발표의 효시였다.

그 후 수도가 서울로 환도되면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험 실습비 일부로 연구 기자재를 손수 만들기 시작하여 소형이나나 Cyclotron이나 Cockcroft-Walton 같은 가속장치가 완성되어 연구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는 일은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60년 10월 14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제 6차 정기 총회에서 학회지 발간이 결의되고 편집간사에 김철수 회원(서울대)이 임명되었다. 편집간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1961년 5월에 역사적인 새물리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당시의 편집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선배 회원의 구술에 의하면 연구 논문 수집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제출된 논문을 옮겨 심사할 회원도 적었고 또 인쇄된 논문을 검토할 직원도 없어 편집간사가 일인백역을 했다고 한다. 또 출판비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사업간사가 해결해 주어 창간호가 난산 끝에 출판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물론 일부 이론연구 논문이 외국 학술지에 발표된 사례는 있었지만 당시의 국내 빈약한 시설로 실험연구를 하여 학술 논문을 발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새물리가 창간된 것이 1961년 6월이니 학회가 창립되고 무려 9년 동안이나 학회의 학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물리 창간사에서 권녕대 당시 회장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에도 대학 또는 연구소마다 나름대로 기관 정보를 실은 간행물이 발간되었었다. 그러한 간행물은 연구 논문을 게재하기보다는 각 연구실에서 얻은 새로운 기기 제작 과정 소개 및 측정 데이터 소개가 그 근간을 이루었다. 또 대부분은 각 기관 연구원의 소식 내지 상호 정보 교환에 주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물리가 지향하는 연구 논문 게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새물리를 창간하려는 목적은 회원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였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 논문이 한 편도 접수되지 않아 결국 새물리 제1권 1호인 창간호에는 연구 논문이 한 편도 게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학회 회원 수가 겨우 111명(학생회원 포함)이었다는 사실로도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5편의 해설 논문(소립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칭적 성질, 기체에 있어서의 Irreversible Processes, 원자핵 반응, 결정학에 관하여, Mössbauer 효과)과 각 분야(강자성체, 원자핵 물리학 및 통계학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과 소립자 토론회 보고 및 광학 분과 활동도 실렸다. 그리고는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실 소개로 회원의 연구 활동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재한 외국인 물리학자(G. G. Hudson(경북대 물리학과), R. G. Sauer(연세대 물리학과), W. Ogg(원자력연구소 보건물리과))에 대하여도 소상히 소개되었으며 한국물리학회 연혁과 회칙도 게재하여 학회 소식을 자세히 소개한 점은 창간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창간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새물리를 구상하면서도 언젠가는 Journal로 승격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글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새물리의 출발이 오늘의 한국물리학회 회지 발간의 밑거름 내지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해 발간된 제2권 1호(1962년 6월 23일 발행)에는 5편의 연구 논문(자장하에 있는 금속전자, Scintillation

Counter에 의한 중성자와 감마선의 식별, Phase edge를 사용할 때의 Schlieren상의 강도 분포의 변조에 관하여, 14 MeV 중성자 발생장치, Semi-Cubic Meson Monitor에 대하여)이 게재되었는데 이 논문이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연구 논문이 되었으며 그 논문에 대한 해설과 배경 설명이 이번 특집호에 게재되었다.

그 후 새물리는 1년에 두 번 발간되었고 새물리 창간 10주년이 되는 1970년부터 계간(연 4회)으로 2000년부터는 매월(연 12회) 발행하게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술 논문지로서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을 우리는 경하해야 될 것이다.

새물리가 창간된 이래 50년이 지난 오늘 한국물리학회에서는 새물리를 비롯하여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KPS), Current Applied Physics(CAP), ‘물리학과 첨단기술’을 발간하고 있으며 작년에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수가 새물리에 188편, JKPS에 736편, CAP에 269편이 발표된 것을 감안한다면 새물리 창간호의 뿌리가 맺은 큰 열매라 자랑하고 싶다.

이제 새물리가 매월 발간되는 학술 논문지로 자리 매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자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하여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Journal이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다.

우선 모든 회원들이 연구하고 있는 첫 논문을 새물리에 투고하기를 권하고자 한다. JKPS나 CAP의 성격에 맞추어 투고할 수도 있으나 연구자의 출발 논문을 새물리에 투고하는 관례가 이룩된다면 새물리에는 연구자의 가장 기초적이고 창의적인 논문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투고된 논문은 가장 새로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논문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새물리는 자연스럽게 국제 학술지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다.

또 가까운 장래에 SCI에 등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새물리를 담당하는 편집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뒤따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창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물리가 국내 Journal에서 비약하여 국제 수준의 Journal로 승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